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권 _ 제 182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6년 7월 30일

함즐함울

www.pcltv.org

2006 청년부 여름수련회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청년공동체에서는 지난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주제로 동신교회 수양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졌다. 주강사로 터키 선교사인 박중건, 정은경 선교사 부부가 섬겼으며, 이성교제와 결혼 특강에 이정현 집사(청년목회자연합 부대표), 직업과 소명 특강과 토론에 원용일 목사(직장사역연구소 부소장)와 크리스천의 재정관리에 이경은 간사(예수전도단)이 함께 섬겼다. 매시간 강의가 마쳐질 때마다 청년들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으로 젖어 있었고 깊은 결단과 헌신이 남달랐던 수련회였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까지 참여했던 수련회 가운데 가장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였음을 고백하였고 강사들

의 헌신적인 수고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기름부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수련회였다. 저녁마다 뜨거운 찬양과 경배, 말씀, 기도회로 이어지는 집회에서는 강렬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부으심, 내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어졌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들이 순간순간 계속 이어졌다.

특히 첫날 저녁 집회에서는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의 고백문을 적고, 깊은 회개의 기도와 함께 직접 제작한 나무 십자가에 그 종이를 눈물로 못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였다. (2면에서 계속)

그림으로 배우는 생활수화 2면

방과후학교 QT특강 2면

교구수련회 3면

영어사역팀 래프팅 이야기 3면

▶ 단기선교 참여팀

팀구분	일 정	사역지역
우물파기팀	7. 26 - 8. 2	다케오 감똥, 프놈펜
선교이야기팀	8. 7 - 8. 13	시아누크빌
청년1팀	8. 9 - 8. 13	캄보디아 서북부, 베트남
청년2팀	8. 9 - 8. 18	시엠리엵, 시스폰
청년몽골팀	8. 11 - 8. 19	울란바토르
청년중국팀	8. 14 - 8. 19	심양, 연길
중고등부	8. 14 - 8. 17	시엠리엵, 시스폰
의료선교팀	8. 14 - 8. 20	다케오

4부예배, 오늘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초대합니다.

"In His Time" _ 오늘 연주팀

"Harp & Oboe 연주" _ 박라나 & 성필관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_ 함영준

"하나님의 선택" (신7:6-8) _ 이 호 목사

"All I Once(나의 만족과)" _ 장근희

중동의 평화와 수해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중동지역에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무장세력 단체인 헤즈볼라의 제거를 명분으로 거행되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폭격은 레바논

의 민가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의 절규와 탄식의 소리가 땅을 가른다.

또한 이 땅에는 폭우로 인해 가족과 모든 재산을 잃고 신음하는 우리의 동족이 있다. 절망의 숲에 쌓여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요 우리의 자매들이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비가 멈추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바로 그 때이다.



말씀 속으로 : 수요일예배 전도서 강해 (7:15~29)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문동학 목사

물이 바다로 가서 바다를 다 채울 수 없고 바람은 우리가 잡을 수 없듯이 인간

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어 우리가 열심히 일은 했지만 남은 것이 없다고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기술된 전도서는 전한다.

결국은 지혜를 찾고자 했지만 실현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닫게 된다. 자기의 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패망의 길로 간다. 외형적으로 악인과 의인은 구별 할 수 없다. 지혜와 정의는 인간의 능력 안에는 없

다. 인간이 성숙되어진다는 것은 세상의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능력을 분명히 알고 결코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 선만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주지 말라. 참 진리는 멀리 있고 지혜의 바다는 너무 깊고 넓다.

그 지혜를 누가 알까? 생각을 찾고 깨달아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천 명 중에 한 사람도 못 찾았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의에 더 가까워진다. 결코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세상사는 동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1면에 이어서)

2006 청년부 여름수련회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이어서 청년공동체 수련회를 방문한 홍근용 은퇴 장로와 이영자 장로, 이지화 장로, 최상인, 동현수, 이미영 집사들과 청년공동체의 담당목사인 윤은성 목사, 이상호 전도사, 김신영 전도사 등이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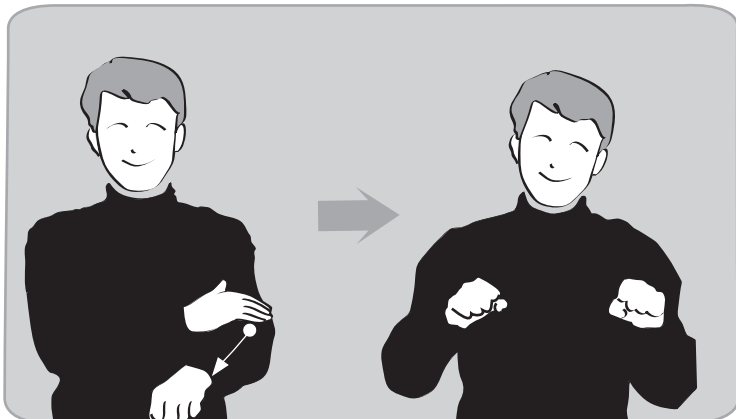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는 청년들로 서기를 당부하는 시간은 모든 청년들이 가슴과 영혼으로 함께 울며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다.

매일 밤 창세기 성경강해를 통하여 개인과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말씀의 눈을 열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특강을 통하여 이성관, 결혼관, 재정관, 직업관, 비전과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수련회의 연장으로 9월과 10월에는 7주간의 데이트 스쿨을 진행할 계획이며, 11월에는 직장사역 학교를 4주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으로 배우는 생활수화

수화교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제세요]
How are you? [Good-bye.]

오른손으로 왼팔을 쓸어 내린 후, 양손을 주먹 쥐고 밑으로 살짝 내린다.

오늘 기도



2006.7.23

뜻대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복음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골3:14)

주여! 당신의 발이 머무는 곳을 영하롭게 하기위해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방과후학교 큐티강의

‘큐티는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가?’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

방과후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위한 QT(quiet time, 성경묵상)강의가 매 주 토요일2시부터 3시까지 유아부실에서 열리고 있다.

여름특강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 강의는 성서 유니온선교회 남서울지부장인 박명섭 목사가 인도한다.

청소년들을 위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플래쉬자료 등을 보면서 큐티가 무엇이며 성경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수업이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가 같이 어울려 서로의 생각을 나누



이 강의는 여름방학동안 매 주 토요일마다 열릴 예정이다.

즐거운 교회생활 캠페인

집회실과 수련실,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교회 모든 부속실은 성도들은 물론 정신 여중고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을 사용하는 한 분 한 분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아끼며 소중하게 사용한다면, 교회와 학교의 더 좋은 나눔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1. 사용 전 사무실 예약하기
2. 사용 후 엠프, 전등, 에어컨 전원 확인
3. 청소 및 정리정돈 (국수 식사는 식당에서만)

2006 교/구/수/련/회

2교구

“우리는 영적 가족”



2교구 수련회가 7월 21일부터 22일(1박2일)까지 남양주 정동 수양관에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4:12)는 말씀으로 109명의 교구식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집에 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은혜롭게 진행된 수련회의 첫째날 특강(강사 이창현 목사)에서 우리의 뜻대가 누구인지 바로알고 만나고 있는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생각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은 초대교회의 소그룹모임을 통한 교회의 참모습을 다시

한 번 반추해 보며 예수님을 닮은 진정 살아있는 산돌들이 모인 소그룹기동만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부흥의 주축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4, 5개구역 연합공동체 별로 소그룹모임을 갖고 찬양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 신앙체험담을 나누며 피차에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다.

공동체놀이시간에 7구역 최미현 집사가 인도한 포크댄스를 통해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순간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찬양반주로 수고해 주신 8구역 최영순 집사, 폭소를 자아 내게 한 임경수 집사, 강석인 집사의 넌센스퀴즈 50고개 등 어느 해보다 역동적이며 뜨거운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였다.

8교구/30CUP

“우리의 고통을 넘어서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다짐”



지난 6월 17-18일, 24-25일 두 번에 걸쳐 여름 수련회의 시작을 알린 8교구/30컵

의 수련회가 있었다. 여성만이 참석하고 있는 구역모임의 가정을 초대 한 첫번째 수련회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세계교회 협력센터에서 열렸다. 15가정과 스태프들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교제와 식사 시간을 갖고 함께 예배 했다. 특별히 아내들만의 모임, 남편들만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동석한 작가들에 의해 극화된 그들만의 이야기들은 예배 중에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표되며 공감과 웃음을 자아냈다. ‘궁핍’(COMPASSION)이라는 주제로 그려진 이번 수련회에는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삶을 함께 살기로 다짐하는 부부로 나아가는 결단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18일은 길가예교회를 방문, 그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24-25일 강원도 한 펜션에서 진행된 30CUP수련회는 25명의 30대들이 참석했다. 식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마을 주민의 용달차를 함께 타는 등 우정을 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궁핍’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5시 돌아오는 버스에 타는 시간까지 평화로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영어사역팀

"래프팅하며 하나되는 시간"



지난 6월 24일 영어사역팀이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으로 래프팅을 하러 갔다. 아침 일찍 20명이 모여 출발했고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맑고 화창했다. 도착하여 다들 선크림을 바르고 구명조끼를 입고 체조로 가볍게 몸을 풀었다. 세 조로 나뉘어 노 젓는 법, 보트에 앉는 법과 급류를 타는 요령을 배우고

내린천으로 나갔다.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급류를 타는 건 정말 즐거웠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중간중간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며 대화도 나누고, 다른 조의 배와 물싸움을 하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되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시간이었다.

On June 24th, the English Ministry (EM) went on a river-rafting trip to Nae-rin Cheon in Kangwondo, Inje. On a clear and sunny morning, 20 members of the EM gathered early in the morning and departed for the river. Upon arriving, they applied some sunscreen, put on their life vests, and anxiously warmed up to prepare for the ride. After a brief tutorial on paddling and boating, the members divided into 3 groups set off for down the river. The refreshing sprays of the rapids on a warm day made for a cheery afternoon. Time flew as they enjoyed the beautiful scenery along the river, chatting with each other and engaging in friendly water fights. With God's blessing and beautiful nature, they had a safe and wonderful time enjoying meaningful fellowship.

유년부 학부모초청예배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찬양과 율동을”



유년부는 지난 주일(7월 9일), 11시 30분부터 학부모초청예배를 소예배실에서 드렸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찬양과 율동을 하며 예배가 시작되었다. 성경의 인물에 대해 알아맞히는 ‘퀴즈박사’ 시간 후 ‘난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라는 제목으로 이진화 전도사의 말씀이 있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진 우리’에 대해 말씀했다. 그리고 광고시간에는



비해 교사들은 그 수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사봉사활동에 참여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유년부의 활동사항은 유년부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welovechildren.cafe>)를 통해 볼 수 있다.

7월23일부터 25일까지 안성 너구리 문화마을에서 있을 여름성경학교에 대한 안내영상을 보았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유년부의 숫자가 두 배로 증가했는데

교회생활 이모저모



식당소독

식당 소독을 위해 7월 30일과 8월 6일 국수봉사를 제공할 수 없다.



교회웍스청소

교회의 복도 및 각 부속실의 왁스청소작업이 7월 24일부터 시작되어 8월 5일까지 진행된다.



도서관 휴관

9월 1일까지 도서관 휴관이 이어진다. 토요일과 주일은 이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설만한 물가 휴무

여름 방학에 맞추어 설만한 물가가 휴무에 들어간다. 8월 21일까지 계속되며 주일은 이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2교구 수련회 사진전

2교구 수련회 사진이 1층 동쪽 복도에 전시되어 있다. 오늘까지 전시되며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진을 떼어 가면 된다.



홍보출판부장 김기용 안수집사

7월부터 김홍용 안수집사를 이어 김기용 안수집사가 홍보출판부장을 맡게 되었다. 교회의 전반적인 홍보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할 것과 더불어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함줄함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사회 월례회

신앙의 비늘이 벗겨지는 권사로 거듭나길

지난 6월20일(화)에는 권사회 월례모임이 있었다. 권사직분을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였는가 돌아보고, 속죄·회개의 찬송가를 불렀다. 그리고 힘써 모이지 못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했다. 김현령목사가 「신앙의 비늘이 벗겨지는 삶」이라는 사도행전 9장 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했다.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메섹의 도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물음에 사울은 누구시냐고 되물었다. 우리는 죄를 죄라고 지적해도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회개의 소리가 우리로부터 일어나야 한다. 사울이 눈이 먼 후 식음을 전폐하고 기

도하듯 권사회가 식음을 전폐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신앙의 비늘이 벗겨지는 삶을 살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권사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권사들에게 말씀하신다.

권사들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권사들이 동참하였더니 즉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리라" 일어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하는 고백이 나오길 바란다.

주신 말씀에 큰 감동을 받은 1부 순서가

Misson 함줄함줄,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아빠, 아빠가 안 안아주면 나 빠진다! (X)”

흔히, “성이 나서 마음이 토라지다”는 뜻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빠졌다, 그만한 일에 빠지면 되니? 처럼 씁니다. 이때 쓰는, ‘빠지다’는 잘못된 겁니다. 성이 나서 토라지는 것은 ‘빠지’는 게 아니라 ‘빠치’는 것입니다. ‘빠지다’는, “칼 따위로 물건을 얇고 비스듬하게 잘라 내다.”는 뜻으로, 김치국에 무를 빠져 넣다처럼 씁니다.

이 기사는 수원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의 성제훈박사의 이메일 자료에 기초, 교회의 실정에 맞게 재편집한 것입니다.

청년공동체의 여름 사역은 계속된다

오는 8월 1일 화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청년공동체의 농촌봉사활동이 시작된다. 특히 평창지역은 이번 여름 수해를 입은 지역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와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꿈나무 학교를 운영하여 농촌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수학, 영어회화, 음악, 만들기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왕의 자녀답게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청소년 찬양집회와 장년성도들의 도움으

로 한방 진료와 미용 봉사 등이 준비되고, 청년들의 마을복구와 정리 사역이 주를 이룰 것이다. 또한 8월 9일 캄보디아 1팀을 시작으로 11일 캄보디아 2팀, 14일 중국과 몽골팀이 출발하는 여름선교도 계속 기도와 준비의 불을 붙이고 있다. 40여일간의 매일 밤 기도회를 모든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찬양과 워십댄스, 역사와 기독교 유적지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여 나가고 있다.



끝난 후, 2부 순서로 김경신장로의 꼭지점댄스 강습이 있었으며 3부에서는 맛있는 점심식사로 교제를 나누었다. 권사회는 매 달 셋째 주 화요일 11시에 모임을 갖고 찬양과 기도, 예배

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고,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갖는다. 월례회에 참석한 한 권사는 권사들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권고한다고 전했다.